

# '1회 충전 380km 주행' 기아차 스마트 전기차 '니로EV' 공개

### 광주 DJ센터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서 전시... '관심 집중'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을 찾은 관람객들이 기아자동차 전시 부스에서 신개념 고성능 스마트 전기자동차 '니로EV'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기아자동차(이하)가 국내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야심차게 개발한 신개념 고성능 스마트 전기자동차 '니로EV'에 호남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에 별도 기업 부스를 마련하고, 전기차 '니로EV'와 '더 뉴 K5 하이브리드'를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F 참가는 기아차의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사회공헌 실현을 위해 이뤄졌다.

호남권 유일의 국제산업전시회인

ICEF는 친환경기술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아차는 전시회 기간 동안 니로EV와 더 뉴 K5 하이브리드 전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적극 알리고 기아 친환경차의 우수한 기술과 성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뛰어난 실용성을 갖춘 고성능 스마트 전기차'를 목표로 개발된 니로EV는 1회 충전만으로 최소 3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미래지향적이면서 독창적인 내·외장 디자인을 자랑하는 니로EV는

앞비퀴와 뒷비퀴 차축의 중심지까지 거리는 '축거'가 동급 최장으로 설계돼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넉넉한 트렁크 용량, 각종 첨단 안전공법과 다양한 주행안전기술, 편의사양 등은 국산 소형UV 최고 수준의 상품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돼 함께 전시 중인 '더 뉴 K5 하이브리드'는 16인치 휠 모델 기준 1리터당 18.0km의 뛰어난 연비를 실현했다.

여기에 고속도로 주행·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부주의 경고 등 동급 최고의 첨단 안전 사양까지 갖춤으로써 경제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중형세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아차는 이번 ICEF를 통해 신개념 고성능 스마트 전기차 '니로EV'에 대한 호남지역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니로EV 등 기아차 친환경차량의 우수한 기술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기아차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서른 살 오리온 '포카칩', 누적매출액 1.4조 넘었다

1988년 7월 출시 판매 약 17억 봉지



올해로 출시 30주년을 맞은 오리온의 생감자칩 '포카칩'이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누적매출을 달성했다.

오리온은 1988년 7월 출시된 '포카칩'의 국내 누적매출액이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개수로 환산하면 약 17억 봉지로 30년간 1분에 100봉 이상씩 팔린 셈이다.

그동안 사용된 감자 수는 10t 트럭 4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약 22억개다.

포카칩은 '초코파이 정(情)'과 함께 오리온의 성장을 이끌어온 대표 제품이다. 1980년대 후반 유렵 등 선진국에서 생감자칩이 인기를 모으는 데 착안해 출시한 이후 1994년 감자칩 시장점유율 1

2016년 '하오요우 취(好友趣·스윙칩)'가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고 베트남의 경우 '오스타(O Star·포카칩)'가 현지 생감자칩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오리온은 포카칩 출시 30주년을 맞아 공식 페이스 북을 통해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리온 관계자는 "30년간 변함 없이 포카칩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맛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고객, 감자농가, 오리온이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제품 혁신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 올랐으며 2012년에 감자칩 최초로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를 낸 데는 감자연구소의 연구를 통한 적합한 감자 품종 개발 무게 조절을 통한 제조기술력 등이 바탕이 됐다. 또 현재는 감자 재배 우수농가 500여명과 계약을 맺고 연간 2만에 달하는 국산 감자를 사용하면서 농가 상생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오리온은 중국의 경우

## "플라스틱 아웃"

환경문제 관심↑가능성 텀블러 주목 정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무협약



쓰레기대란 등을 계기로 재활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텀블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매장 안에서는 머그컵 등의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하고 개인 텀블러 사용시 1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사회 분위기가 재활용 문제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텀블러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TMOS)의 경우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3%(2012~2017년 기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의 절반 이상을 텀블러 제품군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텀블러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보온·보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업그레이드한 텀블러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써모스의 경우 진공단열 휴대용 텀블러인 'JNL'을 선보이고 있다. 써모스의 대표 모델로 한 손으로 마개를 열어 음용할 수 있는 원터치 마개가 특징으로 '원터치 보틀'

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500ml 기준 68도 이상, 10도 이하(6시간)로 유지되는 보온 및 보냉 효능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21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간편해 텀블러에 커피를 넣어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이동이 잦은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락앤락의 '트위스터 텀블러'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제품이다. 핑크, 그린, 블루 등 세 가지 컬러에 색연필을 닮은 디자인으로 개성 있는 아이টে็ม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독창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트위스터 뚜껑으로 간편하게 돌려 열 수 있고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러버(고무)코팅을 통해 기능성도 강화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탠리 보온병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탠리의 클래식 보온병은 470ml 용량이 넉넉하다. 이중벽의 진공단열 구조로 제작돼 60도 이상에서 12시간을 유지하는 보온력도 특징이다.

6월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전월비 0.42%포인트 하락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한 2018년 6월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자료에 따르면 어음부도율은 0.52%로 전월 0.94%에 비해 0.42%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남지역 부도금액(사업체 기준)은 138억4000만원으로 전월 273억원에 비해 134억6000만원이 감소했다.

업종별 부도금액은 서비스업이 114억9000만원 감소했고, 제조업은 14억1000만원, 건설업은 5억5000만원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34억9000만원 감소했고, 전남은 2000만원 증가했다.

신규 부도업체는 1개로 전월과 같았으며 광주지역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통직필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오늘부터 어르신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 걸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스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복지부, 기초연금수급자에 이동통신 감면 시행 월 1만1000원 한도...정부, 年1898억원 통신비 절감 추산

정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